막내린 민주 대선 후보 '무감동 경선' 59일

'준플레이오프' 전략…분열만 심화

민주통합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투표를 기반으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16일로 59일 동안의 숨 가쁜 여정을 마감했다.

당 지도부는 혁명적 경선 방식이라고 소란을 떨었지만 철저한 관리 부재와 끝 없는 공정성 논란으로 미완의 정치실험으로 끝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평가다.

역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민심의 반영폭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대의원과 당원이 선출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유권자의 참여폭을 넓혀온 것이다. 2002년 경선 때 도입한 국민참여경선은 종래 대의원이 선출하던 대선 후보를 대의원 20.3%, 당원 29.7%, 일반 유권자 50%로 개정해 일반인 몫을 절반으로 넓혔다. 이어 2007년 경선 때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모집해 선거인단 90%, 여론조사 10%의 반영 비율을 정했다.

민주통합당 임채정 선거관리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경선'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정견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유권자 확대 '오픈 프라이머리' 실패 논란

모바일 투표 불공정 시비 속 갈등·후유증 야기

하지만, 이번 경선은 여론조사조차 없애고 선거인단 100%로 치르는 방식을 선택했다. 말 그대로 선거인단에 신청한 유권자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긴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러 측면에서 마찰음을 냈다. 우선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다 보니 당의 뿌리인 대의원과 당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 유권자나 당원 할 것 없이 모두 1표씩만 행사하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수십년간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던 대의원과 당원들은 자신들의 1표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1표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푸념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행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모바일투표가 비문(非文·비문재인) 후보 측에 의해 불공정 경선의 대명사처럼 취급받았다. 경선의 신뢰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이는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시스템상 허점을 확인하지 못한 당 지도부의 안일함이 부른 실패였다.

첫 경선인 제주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두고 모바일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암호프로그램의 에러로 개표값이 모두 0으로 나온 뒤 이를 바로잡은 것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모바일투표 안내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투표한 뒤 전화를 끊었을 때 이들의 표가 미투표 처리된 부분 때문에 2차 울산 경선은 비문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는 파행까지 불러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투개표 과정의 에러가 발생해 모바일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모바일투표의 파행으로 시작된 '룰의 전쟁'은 '문-비문'의 대립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고, 이는 당내 친노세력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번졌다.

때문에 이번 대선후보 경선은 감동도, 흥행도 없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고 말았다.

애초 당 지도부는 '최소 150만, 최대 200만'의 선거인단 모집을 호언장담했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에 모집된 선거인단은 모두 108만5000여명에 불과했다. 낮은 관심도 속에 투표율도 50%대에 그치면서 경선 현장에서는 열성 지지자들이 빠져나간 뒤에는 '썰렁한' 장면이 심심찮게 연출되는 등 경선 갈등과 후유증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별 민주통합당 경선 득표율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서울 (9.16)	60.6	20.8	11.6	7.0
경기 (9.15)	62.8	23.4	8.8	4.9
대구·경북 (9.12)	56.9	17.8	20.1	5.2
대전·충남 (9.9)	62.7	18.2	11.0	8.1
부산 (9.8)	66.3	10.0	21.6	2.2
광주·전남 (9.6)	48.5	32.3	15.8	3.5
경남 (9.4)	45.1	9.4	43.9	1.5
인천 (9.2)	50.1	26.6	16.7	6.7
전북 (9.1)	37.5	23.4	12.5	26.5
충북 (8.30)	46.1	40.3	11.0	2.6
강원 (8.28)	45.9	37.6	11.0	5.6
울산 (8.26)	52.1	11.8	32.1	4.1
제주 (8.25)	59.8	20.7	14.7	4.8

연합뉴스

민주당 '문재인 1인 체제'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권한 위임 결정

사실상 '당 지도부 2선 후퇴' 쇄신 박차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에게 최고위 권한을 넘기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사실상 지도부가 해체되고 '후보 1인 체제'가 구축되면서 대선 국면에서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날 최고위 결정에 따라 선대위 구성을 의결하는 당무위의 권한 자체도 후보에게 위임되며, 당의 인사 및 재무권도 후보에게 넘어가게 된다.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종걸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경우 비대위 전환 및 전대 개최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도부는 당초 쇄신안도 다듬을 예정이었으나 쇄신안 확정도 후보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같은 지도부의 결정은 경선 과정에서 심화된 당내 분열상을 조기에 수습하면서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후보는 곧바로 전권을 쥐고 당내 갈등 수습책 및 쇄신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선대위 구성은 10월 초반에나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향후 2주가량 지도부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당분간 선대위에 앞서 조만간 꾸려질 대선기획단 중심으로 당 운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보궐 선거 공천, 윤리위 소집 등의 영역은 기존 최고위가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野연대 버리고 安연대 준비?

강기정 최고 "통합진보 분당 연대 사실상 끝났다"

민주통합당이 조만간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파기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결별 자체는 기정사실화됐으며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통합진보당의 내분사태가 탈당과 분당으로 귀결된 상황에서 먼저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야권연대의 한 축이었던 통합진보당이 자기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분당과 탈당으로 끝을 맺어 안타깝다"라며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권창출을 위해 더 크고, 더 넓은 연대가 정립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쇄신하고 소통해야 하며,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을 반대하는 세력은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야권연대 파기는 유력 장외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국면에 대비하려는 포석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통합진보당과 확실히 선을 그은 뒤 안 원장과의 단일화에 집중하는, 이른바 '선(先) 야권연대 파기, 후(後) 단일화' 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연대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안 원장으로 대변되는 당 밖 세력과의 '새로운 연대'를 위한 자락을 깔아놓겠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지도부 내에 아직 일부 이견이 있는데다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 등 탈당파들과의 연대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현재의 통합진보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며 "하지만 통합진보당 탈당파를 포함한 반 새누리당 세력과는 폭 넓은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첫 고비…'文-安파도' 넘을 비책있나

유력 후보 중 가장 먼저 대선전의 전면에 나섰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이번 주 첫 고비를 맞게 됐다.

민주통합당이 16일 문재인 대선후보를 선출한 데 이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금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후보 측은 지난주 '인혁당 발언' 논란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주 '문재인-안철수'의 대선전 전면 등장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따라서 박 후보 측은 이를 극복하는 비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우선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이 고비를 넘기겠다는 생각이다.

정책의 각론은 ▲재벌개혁 ▲청년일자리 ▲서민주택 정책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개혁의 경우 시장에서 재벌의 독식을 막겠다는 의지를 박 후보가 강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지난 7월 출마 당시와 이후 기자간담회 등에서 언급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경매 틈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
부실채권(NPL)
!! IMF때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건당 수천만원~수억원 수익 !!

NPL이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줬지만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대출채권을 의미하며, 무수익여신 또는부실채권이라불리운다
NPL 투자란?	부동산 담보부 NPL(제1순위 저당권)을 싸게 매입하여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거나 직접 낙찰받아수익을얻는방식이다.
NPL투자의 매력은?	일반경매보다 낙찰이 우월하며, 실투자금이 적고(높은 대출금), 양도세를 내지 않는 등 고수익 투자상품이다.

◑ 제3기 NPL최고전문가 과정 ◐
♣ 개 강 : 9월 11일(화)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오전반(10시), 야간반(7시)
* 교육기간 : 9월 11일~11월 6일 / 2개월과정
실전투자 교수진
이 현 준 교 수
* 한국NPL경제연구소소장* 법무법인『바른길』자산관리팀장
* 다와옥션NPL실전투자교수
* PMG(박문각)부동산스쿨(강남,종로)NPL전임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교수
특강 : 이영준교수("부실채권과경매이야기"저자, PMG(박문각)부동산스쿨NPL전임교수)
◈무료 공개특강◈

내용	"NPL의전망과수익구조"
일시	* 9월7일(금) : 저녁7시/ * 9월8일(토) : 오전10시
혜택	* 사전예약및당일접수시 ☞수강료10%할인/교재20%할인

Dawa (주)다와옥션 ☎ (062)352-8589(代)
『법원경매』의 길잡이! www.dawaauction.co.kr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급매)광주북구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5층상가(대지166p, 건평 470p,5층은 주택)매가 17억(보.융.6억 포함), 월수940만
임야,토지,전답
▶광주 동구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대지1014평(3353㎡)사정상 급매 대로 35m 도로접함, 투자가치높음. 매가21억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산14-1임야77,727㎡(23,512평) 매가 평당 5천원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 (1,412평) 매가평당100만
▶나주시 문평면 잡종지 6차선도로450M 접함 15,638㎡(4,730평) 매가 평당20만원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임야 5만 천평, 평당1만원 절터 및 연수원 부지적합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부근 답8,433㎡ (2,550평)매가평당90만
▶장성 서삼면 대곡리 대528평(계획관리지역 도로여건좋음)
▶화순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전원주택 펜션부지(전망 아주좋음)대210평 매가 평당 70만
▶무안군 운남면 연리 계획관리지역 2700평 2차선 도로120m접,지대높음 매가평당15만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창고주택공장적합
기타물건 다량보유
매매,교환(토지,상가,임대)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창고주택공장적합
▶담양 봉산면 대추리 과수원부지 대형차량 진입가능, 창고 공장,전원주택 적합
▶함평 나산면 초포리 12,990㎡(3,930평)도로접,공장창고 전원주택 등적합
▶나주군 봉황면 덕곡리 2차선 도로접, 전,임야6,100평 매가1억5천만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평 평당 400만 중심상업지역 위치좋음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1,392㎡(421평)년수익5~6백만, 주말농장 전원주택 가족묘지등 매가 3,400만
▶장성읍 덕진리 대로변 공장설립허가지역 창고, 전원주택,공장등적합, 전10,100평 매가 평당15만
상가주택등
▶장성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입구 모텔 및 식당 대800평 현성업중 매가17억
▶서구화정동 염주사거리부근 상가주택 준주거지역 대90평,건148평 보7천만 월540만 매7억
▶서구 풍암동 상업지역 최고상권 대121평 건524평,보1억8천만,월수1150만,매18억5천만 지하1 지상5층
▶광산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22억(융,보5억포함)월수익1400만
▶동구대인동 대로변 사거리코너상가 매가12억5천만(융,보5억2천포함)월수익1,100만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수익성 최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수익11억
④ 25억=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경매투자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2.특수물건만 전문 취급
3.NPL 매입/투자비법 전수
4.단독/공동투자 가능
5.교육/임장비등 회비 550만원
자본주 모심 /10억이상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